



주 제:	“진리의 성령”	“부활 제 6 주일”	2008년 4월 27일
복음 묵상:	[요한 14,15-21]	[사도 8,5-8.14 -17]	[1 베드 3,15-18]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와의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와의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켜 기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니,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써,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에 넘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여 줍니다(사도 8, 17).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박해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1 베드 3, 16-17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요한 14,23) (안동전 장호신부님 강론중에서)

1분 명상

“ 하느님을 상상하기, ”



하느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의 하느님을 그리겠는가?
온화한 표정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굳은 얼굴을 하고 계실까?
심판자처럼 보일까, 아니면 미소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기꺼이 초대하면서
팔을 벌리고 계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분이신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은 굳은 얼굴을 한 심판자에게는
그다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잡지의 편집자에게 온 편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왜 항상 인생에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글을 쓴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느님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은
요한복음 14 장에서 17 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다정하고
보살피주는 분으로 믿는다면,
많은 희망과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하느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음 [요한 14,15-2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 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 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 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 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묵주기도의 유래와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질문]

30 대 후반의 남자 신자입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편인데 묵주기도의 유래를 알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유래와 또 어떻게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답]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과 성모님의 생애의 신비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어주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이런 신심은 이미 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틀을 이룬 것은 1214년에 이르러서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내려오다 13세기에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고 전 교회에 전파된 것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알비파라는 이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의 무거운 죄악이 알비파라는 이단으로 회개 안되는 것을 보시고 툴루스 가까이 있는 숲 속에 들어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열절히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행까지 하였는데 이것으로 성인은 끝내 혼수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 세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나는 네가 영신적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릴 도구와 무기는 언제나 신약의 기초가 되는 ‘천사의 찬미가’였음을 알기를 바란다. 네가 저 완고한 영혼들에게까지 도달하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들여 승리하고 싶다면 나의 찬미가(묵주)를 전파하여라.”

도미니코 성인은 즉시 이것을 실행에 옮기며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고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묵주는 묵상과 영경기도이지만 관상기도로 이끌어주는 결국 관상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은총 중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므로 그 단에 해당하는 신비를 묵상하며 천천히 바쳐야 합니다.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에서 종종 어찌나 빨리 바치는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성스레 바치는 한단이 경솔하게 주문 외우듯 바치는 수천단보다 더 훨씬 가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치(관상)를 이룹니다. (김연준 신부(광주대교구) [가톨릭신문] 발체